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관영 도지사가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시작은 잼버리, 끝은 새만금

24일 전북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의원)의 도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열린 전북도 국정감에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 먼저 거론됐고 이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가 거론됐다. 잼버리로 시작해 새만금으로 끝난 국정감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잼버리 파행에 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잼버리와 관련해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잼버리 백서 발간을 맡은 업체가 전북도청에 입점한 문구업'이라며 '백서 편찬 전문 업체도 아니고 전북도의 실책에 대해 공정하게 기록할 업체도 아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했다.

같은 당인 김웅 의원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사태 발생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문건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했다"면서 "이 문서에는 주최 기관은 세계스카우트 연맹이고 집행위원장은 결재권자도 아니고 기반시설만 맡았을 뿐이라고 적혀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북은 8명의 공무원을 파견 보냈고 여가부는 4명뿐인데 이걸 보면 전북이 기초공사 만 한

與, 잼버리 파행 책임 공세 野, 새만금 예산 삭감 비판

것이라고 하면 누가 믿느냐 이는 해당 문건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인 조은희 의원은 "잼버리 대회는 전북도가 부실한 행사 준비로 인해 전북도민의 자존상에 상처를 줬다"고 했다. 아울러 "원인 중 하나가 잼버리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답합 용역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됐다는 것"이라며 "간식을 공급한 곳은 전북의 사무기기 판매업체, 상징물 제작은 전북의 속눈썹 기술업체가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조직위나 전북의 일이다 구분하면서 일하기 보다는 같이 협조하면서 행사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일했다"고 반박하면서 "잼버리와 새만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잼버리 사태 이후 유례없이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표현"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조 의원에 대해 "잼버리의 책임이 전북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길래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안위, 전북도 국정감사

아편은 김관영 도지사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일각에서 김 지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책임회피는 없다고 말을 했다"며 "도지사는 잼버리 집행위 임장이었는데 조직위 안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 직책이 아니냐"고 김관영 도지사를 응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를 비판했다.

먼저 임호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지를 밝혔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은 고작 1,479억만 반영됐다"며 "도민들이 나와 침묵시위를 하고 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삭감과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새만금 사업과 잼버리 파행이 관련이 있느냐"고 했다.

전준호 의원은 "국가예산은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집행"이라며 "기재부의 사전 전조가 없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그 일(잼버리) 이후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즉흥적이

고 감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했다.

이형석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할 기틀을 마련할 터전이 확보됐는데 잼버리 대회 이후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70% 삭감한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보복성 삭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 뜻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반성 발언과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새만금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전북도민의 뜻이 아니겠느냐. 국민이 옳다면 새만금이 제대로 가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마스터플랜에 의해 1989년부터 매년 꾸준히 배정되었던 사업"이라며 "잼버리는 잠깐 있었던 행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잼버리를 기원으로 마치 전북이 SOC를 배정 받으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이후에 상식적이지 않고 과거 이런 사례도 없어 잼버리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지속되자 김교흥 행안위 원장이 중재에 나서며 서둘러 국정감사를 마쳤다.

도의회 ·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새만금 예산 삭감 반대 예산 복원시켜 정상화'

도청 대회의실 앞 · 도청사 현관 등서

현수막 · 피켓 들고 침묵시위 펼쳐

"새만금 사업, 여야 망라 역대 대통령 공약

SOC 등 핵심 인프라 구축, 尹 핵심 공약"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전북도의회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침묵 시위에 나섰다.

먼저, 전북도의회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대회의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전북도청을 찾은 국회 행안위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관련사진3면>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과 김정기 실무추진위원장 등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예산삭감에 이어 감사원의 표적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여야를 망라한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SOC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새만금 때리기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대규모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34년간 이어진 국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복원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 전 국정감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펼쳤으며, 국감을 마치고 나오는 국

감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휴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인 비상대책 회의도 도청사 현관 및 1층 로비에서 피켓과 새만금을 상징하는 33.9m의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에 동참했다.

전북도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한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북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200여명의 도민들은 '새만금을 살려내라',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쓴 채 진행했다.

특히 시위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새만금장조제의 길이 33.9m를 상징하는 33.9m를 만들어졌고,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예산복원을 요구했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6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전북의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8조3,089억원대비 약 4.7%가 감소한 규모다.

특히, 새만금 SOC사업 삭감 규모가 크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0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원(75%)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축! 전주매일 캠페인

김제시민과 함께
행동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